

# ‘광주재개발 붕괴 참사’ 원인 규명 촉각

### 국토부 사고조사위, 건축물 구조안전 영향 변수 수치 환산 경찰·국과수, 1차 감식결과 이달 중 발표...내달 최종 규명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구체적인 붕괴 원인·경위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꾸린 민간 전문가 집단의 조사·분석이 한창이고,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분석 등을 두루 반영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4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에 따르면, 사조위는 건축시공·구조기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는 8월8일까지 붕괴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인다.

사조위는 현재까지 건축물 도면, 붕괴 전후 사진, 현장 실측 결과, 공사 관계자 청문 기록(10여 명), 경찰·국과수 기록 공유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매주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자료 분석 결과 등을 통해 건축물에 작용한 힘(외력)과 건축물이 저항한 힘(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계량화한다.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되, 필요하다면 청문 내용과 수사 기록·국과수 분석 자료 등

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추산치를 적용한다.

이후 전문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 수치화된 변수를 입력, 붕괴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른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정확한 붕괴 경위가 나오면 건축구조기술사 중심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이번 참사에선 건축물에 작용해 붕괴에 이르게 한 힘으로 건물 자체 하중, 굴삭기 수직·수평하중, 2-3층 높이로 쌓인 흙더미 하중 등이 변수로 꼽혔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반면 건축물이 저항하는 힘은 부재(구조물 기본 뼈대를 이루는 건축 자체) 단면, 기둥·보 개수와 구조 등이었다.

다만 허물다가 무너진 건물에서 사고 당시 철근 개수 등을 객관화할 정확한 자료가 없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고 있다.

남아있는 건축물 도면 역시 실제 시공 과정에서 달라진 내역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자료를 보완하고 있

다. 사조위는 공사 인허가·계약과정, 철거 계획·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감리 책임 소재 등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

사조위 관계자는 “정해진 활동 기간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려 한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합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다”며 “가장 구체적인 붕괴 원인 규명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과수도 이달 중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한다.

국과수는 참사 당일부터 벌인 수차례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붕괴 당시 상황을 거듭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2차례 시뮬레이션을 마쳤으나, 추가 검토를 거쳐 1차 감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진술·자료로 미뤄 다양한 붕괴 요인을 파악했다.



현재 드러난 붕괴 요인은 ▲지하층 내 ‘뱀’ 부실 설치 ▲수직·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작업 절차 무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과도한 살수 ▲굴착기 무게 ▲흙더미 유실 등이다.

특히 경찰은 붕괴물 지하층 공간 안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흙더미(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넘어오는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만큼, 최종 원인 규명은 다음달께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서선욱기자

### 완도해경, 여름 성수기 대비 음주운항 근절에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교통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1건(18년 3건, 19년 4건, 20년 4건)의 음주운항 선박이 단속되었고,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19일 이후 해상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5톤 이상 선박이 음주 운항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완도해경은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레저기구, 여객선, 낚시어선, 도선, 화물선 등 다중이용선박이다.

완도=이민혁기자

### 광주 남부소방, 차량정체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차량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남부소방서와 봉선119안전센터에서 각각 출발해 백운교차로, 무등시장, 봉선우체국, 봉선시장일대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복잡하고 차량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후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 출동 도로 상황과 장애요소 확인, 소방통로상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및 계도 등이다.

고종현 119재난대응단장은 “지속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양소방,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강화 나서

광양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 화재에서 상층부 거주자가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피난했다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양소방서는 ▲아파트 옥상출입문 설치 실태 전수조사 ▲옥상출입문 피난유도선(바닥) 설치 권고 ▲옥상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기계실 방향 차단시설 설치 지도 ▲고가사다리차 활용 인명구조 훈련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양=김종섭기자

### 강진경찰서 경위 김재강,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

지난 1일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김재강(47) 경위가 모범공무원에 선발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경위는 “15여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처음으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게 돼 보람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모범공무원상은 치안 현장에서 함께 애써 온 수많은 동료경찰관들을 대신해 받은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경위는 “경찰생활을 하면서 지난 2017년 학교전담경찰관(SPO) 재직 시 초·중·고 학교폭력예방교육 90회, 지역아동센터 범죄예방교육 18회,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불우청소년 15여명 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50여회 참석하여 학생문제를 고민했고, 강진군 CYS-net 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자원위원, 강진교육지원청 사람책편찬 준비협의회 위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되도록 열정을 불태웠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소 근무관에 대해 김경위는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자”며 “누가 보든 안 보든 공직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본인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3차파업에 “강한 유감, 논의 참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3차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4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대국민 전화문의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등을 다루고 있어 노조는 건강보험공단 직영화와 직접 고용을 촉구 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2월 1차(24일간)와 6월 10일 2차(12일간)에 이은 3번째 파업이다.

### 지난달 회의서 ‘매주 회의→격주’ 제기된 이후 파업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김용의 이사장 단식 이후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공식 참여를 약속받고 지난달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가 처음 위원으로 참여한 같은 달 25일 4차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매주 열리는 7월2일 협의회를 격주로 제안하면서 ‘공단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 속에 3차 전면 파업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김용의 이사장의 단식 등 어려운 과정

을 통해 조성된 대화 국면에서 고객센터 노조가 단 한 차례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후, 변경된 사항이 없�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의 제안을 문제 삼아 곧바로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내부직원들의 감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의 어떠한 업무수행방식 변경도 반대하며 반발하는 내부직원들이 합리적 입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김용의 이사장 등 경영진이 전국의 지역본부로 다니며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고객센터노조가 일방적으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 서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선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